

3국불교벨트 재확인 '성과'

한·중·일 3국불교간의 황금유대 결성을 위해 지난 10~11일 양일간 서울 위키홀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는 각국의 실질적 불교계 최고 지도자가 대거 참석해 21세기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과 사명을 논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중국 북경에서 열린 1차대회가 3국의 불교유대 물꼬를 트는 선인적 역할을 했다면 이번 서울대회는 난민구제, 지구촌 환경보존, 인력교류,

전산화·한끼제공운동등 실천안 논의 정보교류 기구설치등 문화유대 강화

가장자를 출간하고 불교 여성학교를 창설하여 불교여성의 수확체험(修學體驗), 승단관리, 교수방법 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본대표 지영 에이키(江藤英樹)스님도 환경보전과 난민구제방안으로 "매년 3국을 순방하며 '자연환경보전 국제교류우호 세계평화기원회'를 병행, 한국 불교도는 복숭아나무 중국은 매화나무 일본은 벚나무목종을 식재하자"고 제안했다. 어린목들은 각 나라의 어린이로 생각하고 서로간의 평화사절로 길러 마음의 꽃을 피우자는 것이다. 또한 매달 '한끼제공 운동'을 3국이 공동으로 전개해 난민구제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2차 한·중·일불교우호회의의 서울대회 의미

보았으나 대부분 화려한 만찬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각국 대표들은 내년 일본대회가 끝나면 그동안 논의했던 사안들을 실천하기위한 실무기획단을 추진하는등 실질적인 활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국불교계의 황금유대를 실천하기위한 구체적인 실무방안에 대해서는 미약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견해다. 이번 서울대회에서도 불교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인도주의를 위한 공동노력을 하자는데는 합의할

는 정혜스님은 "20세기 과학기술과 물질문명이 낳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본래부터 갖 추고있는 불성(佛性)에 회귀해야 한다"며 자신의 신앙 집점을 강조했다. 3살 때 동진출가한 정혜스님은 중국근대 선불교종조인 허운대사의 법제자로 백림사에 6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선원을 건립하고있다.

이준엽 기자

中日스님 인터뷰

조주선맥 계승... "한국 불교에 감명"

중백림사 방장 정혜스님

"중국에는 10개의 계단에서 매년 3천여명의 승려가 배출되고 있으며 젊은 스님들이 일본보다는 선수령을 희망하고있어 앞으로 중국의 선(禪)불교 전망이 밝습니다."

"90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불교도 우의회 총회에 이어 두 번째 한국을 방문한 정혜스님은 "선(禪)을 중시하는 한국불교에 감명을 받았다"며 "발전된 한국의 선불교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싶다"고 말했다.

조주스님이 선종을 드날리던 백림사에서 조주선맥 잇기에 여념이 없



추고있는 불성(佛性)에 회귀해야 한다"며 자신의 신앙 집점을 강조했다.

"韓·中은 부모, 日불교는 아들"



日정동종 문주 고오류스님

일본 대표 단 명예단장 나가무라 고오류스님(中村隆)은 9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박박한 대화

일정동안 흐트러짐없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어 대화참석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스님은 "중국불교를 아버지, 한국 불교를 어머니로 삼아 21세기에 공존할 일본의 불교는 아들이다"며 "그러나 일본인가운데 70-80%가 아들

임을 잊고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본 최대종파인 정동종 문주 고오류스님은 "3국불교의 황금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고리모만 해석하기보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오류스님은 8년째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일본측 회장을 맡고있으며, 3국불교우호교류대회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티벳스님 첫 공식방문... 양국우의 기원

티벳 탐이사주지 아가스님

이번 3국불교우호교류회의에는 티벳의 승려 1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공식적인 티벳승려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21세 아자찰 불로 추안받고있는 아가스님이 티벳불교를 소개했다.

스님은 "티벳불교는 서장 감숙 사천 청해등 4개성에 분포되어있으며 인구 1천4백만명이 모두 불교신자다"며 티벳이 불교국가임을 강조했다. 또한 "티벳에는 26만명의 승려가 2만3천개의 사찰에서 교화와 정진을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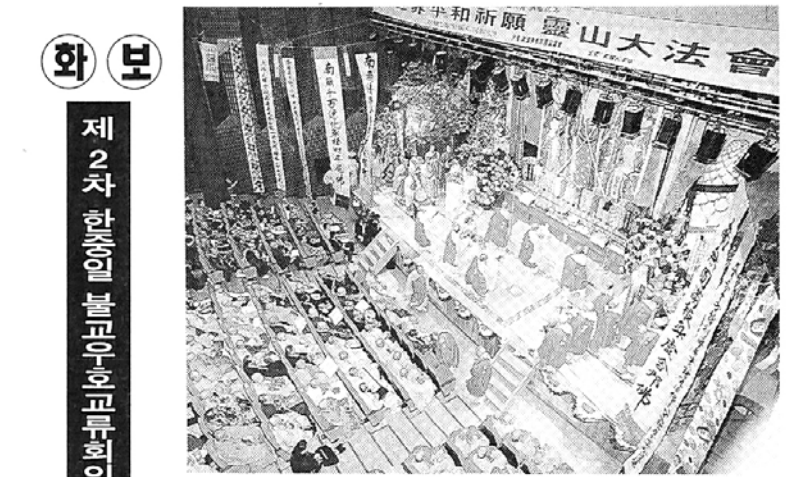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발전상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스님은 "한국불자들이 중국 청해의 탐이사를 방문해서 환영받을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2살 때 제20세 아자찰불의 환생신동으로 인정받아 1952년 탐이사에서 승좌의식을 거행했다. 또한 탐이사에는 종합적인 경전관과 도서관 불사가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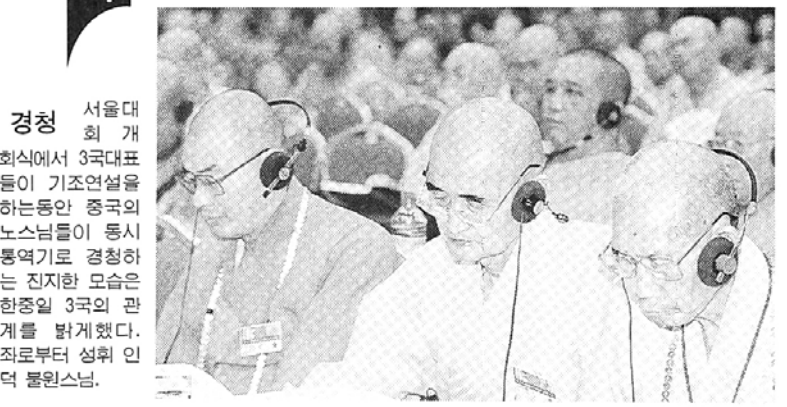


만다라 꽃 날리고...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서울대회 개최식에는 석주스님등 원로 대덕스님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만다라꽃이 날리고 범행이 식장에 가득했다(사진 위). 또한 각국 정치권의 관심도 컸다. 김영삼대통령, 중국 외교부장 천기침씨등의 축전을 띄워 서울대회에의 기대를 밝혔으며 이수성국무총리, 김영수 문체부장관, 이홍구 신한국당대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조순 서울시장을 비롯 서석재 추미애씨등 국회의원 20여명이 방문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자유와 평화의 세상을...



영산재 '한희' 세계평화기원 영산재가 열린(11일) 동국대 예술극장은 부처님이 영취산에 머물러 설법하던때의 모습을 법패 비라를 나비춤으로 재현하여 영산재에 참석한 3국의 사부대중들을 환희심으로 물들게 했다.



경청 서울대회 개최식에서 3국대표들이 기조연설을 하는동안 중국의 노스님들이 동시 통역기로 경청하는 진지한 모습은 한중일 3국의 관계를 밝게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삼국대표 공동 기자회견



"21세기 인류공영 의식 고취"

3국결속 구체화·일본대회후 상설 사무국 설치

이번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서울대회에 참석한 3국 대표단(한국 일주스님·중국 도술인부단장·일본 고바야시 단장)은 지난 10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21세기를 향해 3국 공동사업과 인류 공존공영의 의식고취등 다양한 목적실현을 구상하는 대화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위해 3국불교대표들은 교류목적에 부합하는 세계평화 국제환경 분장해결노력을 위해 내년 일본대회가후 상설사무국을 설치하여 다양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3국대표들은 한중일 불교교류대회가 한국에서는 불교

의 세계화에 눈뜨는 계기를 마련한 것 을 비롯하여 일본에서는 개별적 모임 이 중단된 모임을 활성화하고 중국에서는 불교의 발전을 가져오는 등 성과가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국대표 일주스님은 "중국 북경 연변 도문에 한국사찰을 짓겠다"고 말하고 "개발국의 사회화를 세계화로 확대하여 캄보디아 교육기관설립지원, 월남 한국인2세 복지기금 마련, 연변 조선족 지원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해인총림의 공식입장

가야산 숭배소리 어디로 갔는가? 법보종찰 해인사의 풍경소리는 지금쯤 그 누구와 어디서 누구를 위하여 메아리치고 있는가? 작금에 일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을 앞서 밝힌 본 해인사 중무소는 일정에 맞추어 해인사의 공식입장을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고 진정으로 해인사를 아끼는 4부대중들에게 천명하고자 한다. 그들이도 찬란한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총림 성지, 광활한 푸른진리대를 나르는 흰 골포공을 좋아할 4부대중이 있었는가?

그러나 학인스님들은 마치 중무소 소임자 및 어르신스님들은 반대의사가 없는 것처럼 다들 어찌 않는 용어들을 구사하며 골포공 문제로 진국이 떠들썩한 기회를 빌미삼아 학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해인사의 중무행정에 원천적인 행위와 현재제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어찌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면서 사회통념에 적응하지 못하고 출가한 현실적인 수행자 아닌 수행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길 없다.

그 첫째 지난 7월 31일 국민회의 김대중총재 일행이 해인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국민회의의원들은 해인사의 공식입장에 대해 매우 혼란을 준다고 하였다. "해 공식기구를 회면하고 정체불명의 전화가 오며 야밤에 숙소까지 수소문하여 찾아오는지, 누가 공식 소임자이고 학인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공당인 정당이 공식기구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곤 한다. 둘째 해인사 중무소는 해제 하루전날 강원의 강주, 학감, 입승인 일경, 지산스님을 해임 및 퇴방조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소임자 선거에 출마한 것은 학인으로서 해인사 중무행정을 정식으로 항명한 처사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총림설치령에 준하여 임면권자의 공식적인 해임장도 주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거부해 버렸다. 이는 현재제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강주, 학감스님의 해임조치는 강원 소임자 학인스님들이 중무소 소임자 스님들과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재정진중인 선원에 올라가서 선원 소임자들에게 골포장건립 반대지원을 주지 않는다고 허위로 고해 바침으로 이로인해 정진분위기가 흐트러져서 알맹이 없는 대중공사로 선원대중이 분란이 일어나서 일주스님이 쫓겨가는 현실이 벌어졌으나 학인을 가리키는 강주스님, 학무를 담당하는 학감스님은 약 25여일이 넘어도 수행자로서 공식적인 참회, 근심한번

없었다. 그에 책임을 물어 해임조치 하였으며 당사자인 입승인 일경, 지산스님도 함께 퇴방조치하였다. 셋째 며칠전 교계신문을 통하여 해인사 선원방부는 방정스님이 받으며 다만 점수를 중무소에서 받은 계획이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중무행정의 능력상실이라 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주지스님이하 소임자 스님들을 퇴진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해인사 모든 중무행정을 도맡아 집행해야 할 중무소가 재소임을 못하는 사이 강원은 강원대로 방부를 마음대로 받아서 시설의 수용능력을 훨씬 넘어선 지가 오래되어 결재시 큰방공방을 받아 좁아 참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이 좁아 활자를 찬다고하여 원주실업 객실방까지 비워주는 실정이며 타분사 강원에서는 학인이 고작 1~2십명 내외에 머물러 폐교위기에 있다고 해인사에 항의하는중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강주 및 학감스님은 학인들의 눈치나 살피며 잘못을 해도 참회한번 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작금의 상태는 학인들이 수가 많다는 이유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이미 학인의 신분 을 넘어 현재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비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통탄을 금할길 없다. 또한 이러한 해인사의 사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학인스님들이 증회에까지 가서 '해인사 버 랑 끝에 서다'라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마치 국내 문제를 국외로 가서 일러바치 국가간 에 내정간섭이라는 용어를 내놓을수도 있겠음하는 이러한 행위를 보아도 현재제에 대한 정 면 도전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어찌 강주, 학감, 일경, 지산스님등 해임조치가 골포공 문제 와 결부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해임조치가 마치 골포장건립 지지운동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학인의 신분으로서 더 나아가 수행자의 신분으로서 수행자답고 학인다운 모습은 찾아볼수 없으며 현재제 소임자되진 운동이나 전개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골포장건립 반대 의 지가 있는지 오히려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일련의 사태를 물어볼때 승가대학의 총 교육책임자를 맡고 있는 강주가 해인총림 방정스님 의 말썽을 항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많은 파문을 야기시켰으며 방정스님의 위신과 총림의 위상을 만천하에 떨어뜨리므로 부득이 폐강과 더불어 산문출송을 결의하면서 이와같이 제12 교구본사 해인사 총림회의의원 및 산중총회와 각말사 주지스님들은 이에 적극 지지 결의한다.

1. 해인사 산내암자 및 각말사 주지스님 일동
2. 해인총림 임회의의원 및 산중총회 결의일동
3. 해인총림 대중 일동

4. 해인골프장건립 반대집행위원장 성건
5. 해인사비상대책위원장 성범
6. 해인골프장건립 반대 대책위원장

대한 불교 조계 종 제 12교구본사 해인사 주지 박성범